

원희룡 장관 “한-사우디 수교 60주년 양국 협력 한 차원 높일 때”

- 20일 사우디 관광부 차관 만나 양국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0일(화) 서울 신라호텔에서 사우디 관광부 차관*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* 하이파 빈트 모하메드 알 사우드(Haifa Bint Mohammed Al Saud) 공주
사우디 관광부 차관으로 사우디 민간항공청 이사회 위원 등 역임 중

□ 이날 면담은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세계 지식포럼* 참석을 위해 방한한 사우디 측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.

* 매경 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(2000년 출범), 금년 제23회 포럼은 ‘글로벌 번영과 자유 재건’을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사우디는 ‘73년 우리 건설 근로자가 중동 지역 최초로 진출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, 건설인프라분야는 양국이 공동 발전하는 기반” 이라고 평가하면서,

* 사우디는 해외건설 총 누적수주 전체 1위(1,551억불, '22.9.16 기준)

○ “금년은 양국 수교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, 앞으로의 60년도 양국간 협력 및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○ 특히, “한국의 우수한 인프라 기술이 네옴 등 주요 프로젝트에 활용되기를 희망하며, 한국도 인프라 협력을 넘어 문화 콘텐츠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* (네옴) 홍해 북부지역에 미래형 주거·산업도시(26천km², 서울면적의 44배, 5천억불, '17 발표)
(키디아) 리야드 인근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(334km² 규모, 90억불 규모)

- 한편, 하이파 차관은 “한국은 모빌리티 혁신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유한 국가”라고 치하하면서, “한국과 항공·도로·물류 등을 포괄하는 미래 모빌리티 협력을 희망한다”고 밝혔다.
- 이에, 원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모빌리티혁신 로드맵을 소개하면서 “자율주행차, 도심항공교통(UAM), 물류 등 모빌리티를 스마트시티와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모색되길 기대한다”고 답했다.
- 또한 이 자리에 동석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은 “사우디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공감하며,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”고 덧붙였다.
-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와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CC(걸프 협력회의) 국가 주한대사와의 오찬간담회(8.2), GICC(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, 8.30~31), 92주년 사우디 국경일(9.23)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사우디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, 앞으로도 사우디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2022. 9. 20.

국토교통부 대변인